

2021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선정 작품 재심의 총평

2021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의 3차 쇼케이스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선정 작품의 기 공연 이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해당 단체의 공연 이력을 확인하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7인은 기공연 이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목에 유사성이 있으나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되며 내용과 구성에서 다른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계속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 심의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보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의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7인은 해당 단체의 기공연 이력과 관련된 영상, 홍보물, 지원신청서, 프로그램북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선정작 관련 자료를 비교, 대조하여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22일에 개최된 재심의회의에서는 해당 단체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각 심의위원별 작성한 사전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먼저 해당단체가 기 공연작과 선정작 간 차별점에 대한 소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공연작과 선정작과의 작품 제목의 유사성, 기공연작과 선정작 간의 내용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공연작과 선정작에 제시된 제목의 표기가 동일 작품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작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작임을 강조한 점, 선정작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하여 기공연작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7인은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결정을 통해 무용계 내부에서 신작을 준비할 때 긍정적 창작 풍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공연계에 발전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한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창작자가 자기표절에 대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한 제목, 유사한 내용, 유사한 구성 등으로 표현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창작의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원서 작성 단계부터 타인의 아이디어 및 콘텐츠 도용, 자기 표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자체 진단이 요구됩니다. 이는 자칫 예술계 전반에 만연해 있을지 모르는 도용 및 표절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예술계의 자정 및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둘째, 신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기표절, 유사한 제목, 주제, 내용 구성 등을 심의 전에 살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 및 AI 활용 등도 요구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어야겠으나, 이와 같은 행정심의 시스템이 구비되면 제목만 바꾸어 공적 지원금을 반복해서 수령하는 부적절한 경우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셋째, 창작자들이 각자 적합한 유형으로 작품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신작과 레퍼토리 외에도 연작 및 리서치 등 각 창작과정을 세분화하여 창작자가 점진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작자가 가장 적합한 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원 신청 전 창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해 주제 및 기획의도, 내용 등에 대해서 소신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된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선정작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원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이상으로 공공성, 신뢰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체는 이번을 계기로 미래의 발전적 공연문화를 위해 더욱 성숙한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일동